

충청북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상태변화와 평가인증점수

유재연¹⁾

요약

어린이집에게 평가인증제도 참여는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경우 이외에도 미인증에서 신규로 평가인증을 받거나, 인증에서 미인증으로 이탈하거나, 미인증을 고수하는 경우의 수가 존재했다. 하지만 그동안 어떤 특성의 어린이집이 신규로 평가인증을 받았는지, 이탈했는지, 미인증을 고수했는지를 세분화 하여 알아본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2014년 5월(시점1)과 2017년 5월(시점2)까지 운영 중인 충청북도에 소재한 모든 어린이집 1,056개소의 자료를 수집하여 어린이집 일반특성 및 평가인증점수에 따라 평가인증 상태변화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했다. 첫 번째 분석 결과,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낮을수록(시점1) 신규로 평가인증을 받거나, 이탈하거나, 미인증을 고수하는 경우(시점2)가 많았다. 두 번째 분석 결과, 건강과 영양 영역의 평가인증점수가 낮았던 어린이집일수록(시점1) 평가인증에서 더 많이 이탈했다(시점2). 세 번째 분석 결과, 새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점수는 평가인증을 3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비해 낮았지만, 그 외에 총점, 보육환경,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영역별 점수는 서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평가인증제도 진입을 독려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때 표적 집단이 될 어린이집에 관한 기초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평가인증, 보육정책, 어린이집, 공공빅데이터

1) Iowa State University 인간발달가족학과 박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우수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와 평가인증점수를 공개하여 어린이집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5). 2006년 대한민국에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평가인증제도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80%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을 정도로(보건복지부, 2016) 평가인증제도는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어린이집 서비스 질 관리와 영유아 가정에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이 높게 평가되지만 더 바람직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될 부분이 남아 있다. 첫째, 현재는 어린이집 측이 평가인증제도 참여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20% 정도 남아 있는 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차명숙, 2015; 천희영·최혜영, 2015). 미인증 어린이집에는 예전부터 미인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는 평가인증을 받았다가 현재는 미인증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다. 한편, 현재 평가인증 상태인 어린이집 중에서도 2회 이상 재인증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미인증 상태였다가 신규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도 존재한다(서문희·양미선·이정원 외, 2013). 하지만 평가인증에서 이탈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신규 진입한 어린이집, 미인증을 고수하는 어린이집의 비중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기초현황 자료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나아가 어떤 특성의 어린이집이 주로 이런 경우에 속하는지에 관해서도 연구된 내용이 적다(차명숙, 2015; 천희영·최혜영, 2015). 미인증 어린이집이나 평가인증 상태가 변한 어린이집에 대한 기초정보가 부족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인증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평가인증에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표적 집단을 설정하기가 어려워진다.

둘째, 현행 평가인증 결과는 총점과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의 영역별 획득 점수 각각을 100점 만점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평가인증점수가 과도하게 상향평준화 되어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서비스 질을 가늠하기가 수월하지 않다(김준현, 2017; 유재언, 2014).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표된 평

가인증 어린이집 점수를 보면, 기수평균이 90점대 초중반을 웃돌고, 대부분의 어린이집 평가점수가 90점대에 편중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벌어진 어린이집들도 평가인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점수도 매우 높다는 지적이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다(한겨레, 2016. 10. 5.). 어린이집 입장에서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은 고되고(차영숙·유희정·강민정, 2012; 하영례, 2008)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은 상황이라 원아모집에서의 홍보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다(유재언, 2017). 이처럼 평가인증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다시 미인증이 된 어린이집이 상당히 있으나, 어느 정도의 서비스 질(평가인증점수)을 가진 어린이집이 미인증으로 변경되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찾을 수가 없다. 평가인증점수가 낮았던 어린이집이 이후에 평가인증에서 이탈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평가인증점수가 저조하지 않았는데도 미인증을 선택한 것인지 밝혀내야만 평가인증제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평가인증제도 참여를 신청한 어린이집은 3년 주기로 평가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2회 이상 평가인증을 받은 재인증과 이전까지는 미인증 상태였지만 새로 평가인증을 받은 신규인증으로 구분된다(서문희·양미선·이정원 외, 2013; 이미화, 서문희·최윤경·엄지원, 2012). 그런데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이 재인증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만큼 높은 수준인지 장담할 수 없다(서문희·양미선·이정원 외, 2013). 그러나 아직까지는 다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획득한 점수와 재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획득한 점수 간의 차이를 단순히 비교한 자료만 있을 뿐이다(서문희·양미선·이정원 외, 2013,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7). 이에 관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 자료가 있다면 신규인증 어린이집이 어떤 영역의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하는지 또는 재인증 어린이집의 어떤 서비스 질을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기한, 1)평가인증 상태가 변경된 어린이집의 현황 및 특성, 2) 평가인증에서 이탈한 어린이집의 서비스 영역별 수준, 3)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에 관한 정보 부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에 소재한 모든 어린이집의 2014년(시점1)과 2017년(시점2) 평가인증 여부, 일반특성, 평가인증점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1)어린이집 일반특성(시점1)에 따른 지난 3년 간(시점1-시점2)의 평가인증 상태 변화, 2)기존 평가인증점수(시점1)에 따른 평가인증에서의 이탈(시점1-시점2), 3)신규인증 어린이집(시점1-시점2)의 평가인증점수(시점2)를 세 개의 연구문제로 제시해 각각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평가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어린이집들의 일반특성 및 평가점수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참여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진단하고, 모든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평가인증 제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표적 집단을 설정하는데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개괄 및 선행연구 고찰

논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어린이집 평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부터 간단히 살펴보겠다. 2006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제1차, 2010년부터는 제2차 평가인증이 실시되었고, 2014년 말부터는 제3차 평가인증 시범사업과 기존의 지표를 사용한 평가가 병행되고 있으며, 2017년 말부터는 본격적인 제3차 평가인증이 시행될 예정이다(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cpi.or.kr/>, 2017).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신청하면, 지자체, 어린이집, 한국보육진흥원이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을 하여 참여를 확정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의 현장관찰자가 현장평가를 하고,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 및 결정하여 이 결과를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공표한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5). 제2차 평가인증을 기준으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의 영역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75점 이상을 획득하면 3년 간 유효한 평가인증을 받는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5).

2017년 1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제3차 평가인증에서는 제2차 평가인증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17).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발행한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에 따르면 첫째, 평가인증 평정방식이 절대평가 75~100점의 점수제에서 A, B, C, D등급제로 변경된다. 둘째, 신규로 평가인증에 참여했다가 평가에서 75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하여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불인정)에게만 부여하던 재참여 기회를 재인증을 받는 어린이집에게도 준다. 셋째,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관해서만 공표하던 정보공개가 평가를 받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공개로 확대하고, 미인증 어린이집에 관해서도 미신청, 불인정, 종료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공개한다.

제3차 평가인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로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2차 평가인증에서 달라지는 점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려면 제2차 평가인

증지표로 실시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어떤 특성의 어린이집이 신규로 평가인증을 받았는지, 평가인증에서 불인정 판정을 받았거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서 이탈했는지, 미인증 상태를 줄곧 유지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진 정보가 제한적이다. 또한 평가인증 영역별 점수가 충분히 타당하고 차등적으로 매겨지고,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과 평가인증에서 이탈한 어린이집 간에 차이가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신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획득한 평가인증점수가 재평가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높은지, 낮은지, 거의 차이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평균점수를 단순비교한 정도의 자료만 공개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3차 평가인증에 대한 사전 준비와 함께 그동안의 제2차 평가인증 실태를 면밀하게 진단하고 정리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3년 동안의 평가인증 변동과 평가인증점수의 관련성을 규명하려고 한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주제로 연구를 하였고, 이들의 노력 덕분에 평가인증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상당히 축적되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직원의 평가인증 과정과 사후관리 경험에 관심을 가졌다(서현, 2007; 최미숙·정영미·이빛나, 2013; 탁옥경·배지희, 2007). 이런 연구들에서는 현장관계자들을 설문조사 하거나 심층면접 하여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요구를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평가인증을 진행하는 과정과 더불어 평가인증지표를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자들의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평가인증지표에 관한 연구에서는 호주, 미국, 일본과 같은 외국 사례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제안하거나(이대균, 2005; 이순자·김세곤·이금란, 2007; 조해연·유선영·박선희, 2014), 제1·2차 평가지표의 구성, 영역·지표별 가중치 적용과 측정, 평정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여(김준현, 2017; 염동문·이한우·홍정아, 2015; 이한우·염동문·강봉석, 2016) 평가지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더욱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최근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는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도 서비스 질을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방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김동례, 2015; 박미영·한미라, 2017; 양서정·김수향, 2014).

선행연구들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정과 어린이집에 미치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밝혀내기도 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7). 평가인증을 통해 보육교사들의 전문성이 높아지고(남미경, 2015) 보육자료를 더 많이 활용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과의 상호작용도 늘어난다(김영희, 박지현,

이은주, 2008). 평가인증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거의 대부분(89%)이 평가인증에 참여한 경험에 만족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고(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17), 90% 이상의 평가인증 현장관찰자와 심의위원들이 평가인증제도가 어린이집 질 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이미화·서문희·최윤경 외, 2012). 평가인증 어린이집과 미인증 어린이집을 비교한 서문희·송신영(2009)의 연구에서도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이 우수하고, 교사의 효능감이 높으며, 보육아동 모집에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60%). 서문희·신희연·송신영(2009)의 연구에서도 평가인증에 참여한 이후와 그 이전을 비교하여 평가인증을 통해 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인증 또는 미인증 어린이집의 일반 특성을 밝혀내는 연구들도 여러 편 수행되었다. 2013년 40인 이상 신규 평가인증 어린이집 1,716개소의 평가인증점수를 분석한 서문희·양미선·이정원 외(2013)에 따르면, 설립주체 유형별로 획득한 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총점을 기준으로는 직장(97.1점)과 국공립(95.3점)어린이집의 평균 점수가 높았고, 부모협동(87.7점), 법인(89.9점), 민간(90.4점)어린이집의 평균 점수가 낮았다(서문희·양미선·이정원 외, 2013). 하지만 설립주체 유형별 평균 점수의 순위와 점수 차이는 영역별로 달랐다(서문희·양미선·이정원 외, 2013). 천희영·최혜영(2015)의 연구와 양미선·이규림·정지운 외(2016)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평가인증 유지율과 평가인증 점수가 설립주체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40인 이상 또는 39인 이하로 구분된 어린이집의 정원수규모와 재인증 또는 신규인증에 따라서도 평가인증점수에 차이가 있었다(서문희·양미선·이정원 외, 2013). 2015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 42,865개소 정보를 분석한 차명숙(2015)의 연구에서도 운영기간이 길고, 정원충족률이 높고, 정원수규모가 적은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외에 보육하는 영유아의 구성, 도시규모, 취약보육별로 총점과 영역별 평가점수에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유재언, 2014).

이처럼 최근 들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하여 미인증 어린이집의 일반 특성을 규명하고, 일반특성별 평가인증점수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선행연구에서 몇 가지 제한점이 남아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고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여전히 유효한지 검증하려고 한다. 첫 번째로, 미인증 어린이집의 일반특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평가인증 여부만으로 어린이집을 구분하여,

신규인증 어린이집과 재인증 어린이집, 지속적으로 미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과 평가인증에서 이탈하여 미인증으로 상태가 변화된 어린이집이 별도로 분류되지 않았다(유재언, 2014; 차명숙, 2015; 천희영·최혜영, 201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평가인증 여부가 아닌 두 시점에서의 평가인증 상태변화를 네 집단(인증→인증, 인증→미인증, 미인증→인증, 미인증→미인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어린이집 일반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조사 당시 평가인증 상태에 있는 어린이집들의 일반특성에 따라서 평가인증점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연구되었지만(서문희·양미선·이정원 외, 2013; 양미선·이규림·정지운 외, 2016; 유재언, 2014; 천희영, 최혜영, 2015), 평가인증에서 미인증으로 이탈하기 전의 평가인증점수가 이런 평가인증 상태 변경에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평가인증 상태였을 때의 평가인증점수가 이후 평가인증에서 이탈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신규인증 어린이집과 재인증 어린이집 간에 총점 및 영역별 평가인증점수를 비교한 연구는 있었지만(서문희·양미선·이정원 외, 2013), 평가인증점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나머지 일반특성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인증 여부만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만약 신규인증 어린이집이 특정한 일반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일반특성이 평가인증점수에 관련이 있다면, 이를 통제한 후 신규인증에 따른 평가인증점수 차이는 줄어들거나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어린이집 일반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가 재인증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와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한다.

3. 연구문제

이번 연구에서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린이집의 일반특성에 따른 평가인증 상태변화(인증→인증, 인증→미인증, 미인증→인증, 미인증→미인증)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어린이집이 획득했던 평가인증점수는 이후 평가인증에서의 이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신규인증 어린이집이 획득한 평가인증점수는 재인증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번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2014년 5월 이전에 설치되어 2017년 5월까지 운영 중인 충청북도 소재 모든 어린이집이다. 2014년 5월 말 기준으로 충청북도에 소재하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1,212개소였는데, 이 중에서 이후 3년 간 156개소가 휴업 및 폐업(원)을 하여, 2017년 5월 말까지 운영되고 있는 1,056개소가 이번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이다. 충청북도 어린이집의 일반특성과 평가인증점수에 관한 정보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서(<http://info.childcare.go.kr/>) 수집했다.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관한 정보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의 2014년 5월과 2017년 5월 어린이집일람현황 자료를 활용했다. 평가인증 여부 및 평가인증점수는 2014년 6월 초와 2017년 6월 초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인증 점수로 찾기에 공표된 정보를 이용했다. 이런 방법으로 두 번에 걸쳐 수집한 어린이집 일반특성과 평가인증점수 자료는 어린이집명, 전화번호, 주소를 기준으로 병합(merge)했다.

이번 연구에서의 분석지역인 충청북도 어린이집의 2014년 공급현황은 다른 시·도 지역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충청북도에는 0~6세 주민등록인구 중에서 51.6%가 어린이집을 이용했고, 이는 전국 평균 46.6%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대도시(광역시·특별시)가 없고 중소도시와 농어촌만 있는 9개 도 지역 중에서는 4번째로 평균 수준이다(박진아·도남희·조혜주, 2015). 어린이집 설립주체 유형별로는 전국 평균에 비해 국공립, 가정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반면, 민간 어린이집 이용률은 높았다(박진아·도남희·조혜주, 2015). 충청북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평균은 81.3%로 전국 평균 82.7%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9개 도 지역 중에서는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최효미·이정원·김진미, 2015). 충청북도는 대체로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가 적정 수준이고 옥천군, 보은군, 단양군에서는 충분한 공급이 이뤄졌지만, 청원군, 증평군, 제천시에서는 공급이 적어 접근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최효미·이정원·김진미, 2015). 이와 같이 충청북도는 다른 시·도와 비교하였을 때 어린이집 공급 상황이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고(유재언, 2014), 충청북도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특성도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연구에서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여(차명숙, 2015) 이번 연구에서 분석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 변수설명

가. 평가인증 상태변화

2014년 6월(시점1)과 2017년 6월(시점2) 두 시점에서의 평가인증 상태변화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 종속변수이고, 세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독립변수이다. 평가인증 변경은 인증(시점1)→인증(시점2), 인증(시점1)→미인증(시점2), 미인증(시점1)→인증(시점2), 미인증(시점1)→미인증(시점2)의 네 집단으로 구분했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규명하는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는 인증→인증을 기준집단(=0)으로 하여, 나머지 세 집단을 각각 비교했다. 두 번째 연구문제를 규명하는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도 인증→인증을 기준집단(=0)으로 하여, 인증→미인증 집단(=1)과 비교했다. 이 경우 미인증→인증과 미인증→미인증 집단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평가인증 상태변화가 종속변수였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문제 분석에서와 달리, 세 번째 연구문제를 규명하는 최소자승회귀분석에서는 인증→인증 집단(=0)과 미인증→인증 집단(=1)으로 구분하여 현재의 평가인증점수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나. 평가인증점수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독립변수, 세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종속변수로 사용된 평가인증점수는 총점과 보육환경,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영역 각각에 대해 75~100점까지의 값을 가진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2014년 시점에서의 평가인증점수가 독립변수로 사용되었고, 세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2017년 시점에서의 평가점수가 종속변수로 이용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인증점수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파견한 현장관찰자가 평가를 하고, 평가인증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되어 있는 점수를 사용했다. 3차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34개소는 평가인증점수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연구문제를 규명하는 최소자승회귀분석에서만 제외됐다.

다. 어린이집 일반특성

정원충족률, 설립주체 유형, 정원, 보육하는 영유아 구성, 위탁운영, 취약보육, 운영기간, 도시규모의 어린이집 일반특성은 첫 번째 연구문제를 규명하는 다항로지스틱분석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됐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문제를 규명하는 이항로지스틱분석에서

는 통제변수로 사용됐다. 정원충족률은 정원에서 차지하는 현원의 비율(%)이다. 설립주체 유형은 국공립, 가정, 민간, 기타(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협동, 직장)의 4개로 구분했고, 이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가정이 기준집단(=0)인 더미변수로 만들었다. 설립주체 유형 중에서 법인·단체(30개소), (부모)협동(5개소), 직장(17개소)은 그 수가 너무 적어 사회복지법인과 함께 기타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했다. 보육하는 영유아 구성은 0~2세의 영아만 보육(=0)하는 경우와 3~5세의 유아도 보육(=1)하는 경우로 구분했다. 3~5세 유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7개소에 매우 적어 3~5세의 유아도 보육하는 집단에 포함시켰다. 위탁운영은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1, 직영을 하는 경우 0으로 구분했다. 취약보육은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방과후전담, 방과후통합, 시간연장형, 휴일보육, 24시간 서비스를 하나라도 실시하는 경우(=1)와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경우(=0)로 구분했다. 운영기간은 2014년에 설치된 경우 최소 0년부터 1989년 이전에 설치된 경우 최대 25년까지의 값을 가지는 년 단위 연속변수다. 충청북도에 특별시와 광역시인 대도시가 없으므로 도시규모를 시(市) 지역인 중소도시(=1)와 군(郡) 지역인 농어촌(=0)으로 구분했다.

3. 분석방법

가장 먼저, 충청북도 어린이집의 일반특성과 평가인증점수 기술통계를 알아봤다. 첫 번째 연구문제로, 어린이집의 일반특성에 따른 평가인증 변경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증→인증 집단과 나머지 세 집단(인증→미인증, 미인증→인증, 미인증→미인증)을 각각 비교하는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했다. 두 번째 연구문제로, 평가인증에서 이탈한 어린이집의 과거 평가인증점수가 어떠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014년 당시 평가인증 상태였던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했다. 세 번째 연구문제로, 2014년에는 미인증 상태였지만 2017년까지 새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현재 평가인증점수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2017년 현재 평가인증 상태인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최소자승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analysis)을 했다.

Ⅲ. 연구결과

1. 충청북도 어린이집의 일반특성 및 평가인증 점수 기술통계

연구문제를 본격적으로 규명하기에 앞서, <표 1>을 통해 연구대상인 어린이집의 일반특성과 평가인증점수 기술통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

<표 1> 충청북도 어린이집의 일반특성과 평가인증점수 기술통계

변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
평가인증 상태변화	1,056	100.0		
인증→인증	773	73.2		
인증→미인증	82	7.8		
미인증→인증	120	11.4		
미인증→미인증	81	7.7		
정원충족률('14/'17)	1,056	100.0	86.0(17.5)/73.6(23.6)	0-100/0-100
설립주체 유형	1,056	100.0		
국공립	49	4.6		
가정	472	44.7		
민간	383	36.3		
기타	152	14.4		
정원	1,056	100.0	54.0(50.1)	9-341
보육 영유아 구성	1,056	100.0		
유아(3~5세)도 보육	490	46.4		
영아(0~2세)만 보육	566	53.6		
위탁운영	100.0	100.0		
위탁운영	38	3.6		
직영	1,018	96.4		
취약보육여부	1,056	100.0		
실시	311	29.5		
미실시	745	70.6		
운영기간	1,056	100.0	10.1(6.3)	0-25
도시규모	1,056	100.0		
중소도시(시)	675	63.9		
농어촌(군)	381	36.1		
평가인증점수('14/'17)				
총점	855/861		94.0(3.8)/96.4(2.7)	80.6-99.9/84.8-100
보육환경	855/861		96.2(4.0)/98.1(2.7)	77.7-100/79.0-100
보육과정	855/861		96.1(4.6)/97.7(3.4)	75.7-100/77.0-100
상호작용과 교수법	855/861		94.7(4.1)/96.5(3.4)	78.0-100/79.0-100
건강과 영양	855/861		93.7(4.9)/95.4(4.1)	75.7-100/76.3-100
안전	855/861		91.0(6.4)/94.7(4.9)	75.3-100/76.3-100

첫째, 평가인증변동은 인증→인증이 73%로 가장 많았고, 미인증→인증(11%), 인증→미인증(8%), 미인증→미인증(7%)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지난 3년 사이에 충청북도 전체 어린이집의 1/4 이상이 평가인증 상태가 달라졌거나 미인증을 고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평균 정원충족률은 2014년 86%에서 2017년 74%로 낮아지고, 표준편차는 커져, 지난 3년 사이에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셋째, 설립주체 유형은 가정어린이집(45%)과 민간어린이집(36%)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협동, 직장의 기타(14%)와 국공립어린이집(5%)의 비중은 낮은 수준이었다. 넷째, 평균 정원은 54명이었으나, 최소 9명에서 최대 341명까지 범위가 넓었다. 다섯째, 영유아의 구성은 0~2세 영아만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절반 이상이었고(54%), 3~5세 유아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46%였다. 참고로, 3~5세 유아만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7개소에 불과하여 3~5세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포함시켰다. 여섯째, 위탁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은 4%로 적었고,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직영(96%)을 하였다. 일곱째, 취약보육을 실시(30%)하는 어린이집은 미실시(71%) 어린이집의 절반이 되지 않았다. 여덟째, 평균 운영기간은 10년이었다. 아홉째, 중소도시(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이 약 2/3이고, 1/3정도의 어린이집은 농어촌(군)에 소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평가인증점수 총점과 영역별 획득점수는 2014년과 2017년 모두 90점대 중반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최근 들어 소폭 더 상승했다.

2.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평가인증 변동: 연구문제 1

첫 번째 연구문제로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라서 평가인증 변동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 분석에서는 2014년과 2017년 모두 평가인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기준이다.

2014년에는 평가인증이었다가 2017년 미인증으로 변경된 어린이집의 일반특성에 관한 분석 결과부터 살펴보겠다.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2014년 5월)이 1%씩 높아질수록 인증에서 미인증으로 변경되는 확률이 3%씩 낮아졌다($RRR=0.97$, $p<.001$). 하지만 설립주체 유형, 정원, 보육하는 영유아 구성, 위탁운영, 취약보육, 운영기간, 도시규모에 따라서는 미인증으로 변경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미인증이었다가 2017년 평가인증 어린이집으로 변경된 어린이집의 일반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도 살펴보겠다. 정원충족률이 1% 높아질수록 미인증에서 인

증으로 변경될 확률이 3%씩 낮아졌다(RRR=0.97, $p<.001$). 취약보육을 실시하던 어린이집은 취약보육을 실시하지 않던 어린이집에 비해 미인증에서 인증으로 변경될 확률이 49% 낮아졌다(RRR=0.51, $p<.01$). 이는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2014년 이전부터 평가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운영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미인증에서 인증으로 변경될 확률이 6%씩 낮아져(RRR=0.94, $p<.01$), 설치된 지 오래된 어린이집일수록 2014년 이전부터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립주체 유형, 정원, 보육하는 영유아 구성, 위탁운영, 도시규모는 미인증에서 인증으로 변경되는데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2014년과 2017년 모두 미인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일반특성에 관한 분석 결과를 보겠다. 2014년에 정원충족률이 1%씩 높아질수록 지속적으로 미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일 확률이 5%씩 낮아졌다(RRR=0.95, $p<.001$). 그러나 이번 분석에 사용된 나머지 일반특성은 미인증을 유지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평가인증의 상태변화에 관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변수	인증→미인증 (기준:인증→인증)		미인증→인증 (기준:인증→인증)		미인증→미인증 (기준:인증→인증)	
	RRR	SE	RRR	SE	RRR	SE
상수	2.94	1.75	6.53**	3.71	12.42***	7.13
정원충족률	0.97***	0.01	0.97***	0.01	0.95***	0.01
설립주체 유형(기준: 가정)						
국공립	1.01	0.68	1.00	0.58	0.29	0.33
민간	0.87	0.27	0.88	0.25	1.05	0.31
기타	0.99	0.37	0.67	0.26	0.40	0.20
정원	1.00	0.00	1.00	0.00	0.99	0.00
유아도 보육(기준: 영아만 보육)	0.69	0.23	1.59	0.55	0.91	0.36
위탁운영(기준: 직영)	0.45	0.50	0.71	0.50	0.37	0.35
취약보육실시(기준: 미실시)	0.95	0.26	0.51**	0.13	0.56	0.17
운영기간	0.97	0.02	0.94**	0.02	0.96	0.02
농어촌(기준: 중소도시)	0.71	0.20	0.65	0.16	1.20	0.34
<i>N</i>	1,056					
Wald χ^2 (<i>df</i>)	126.01 (30)***					
Pseudo R^2	.07					
Log pseudolikelihood	-852.97					

** $p < .01$, *** $p < .001$.

3. 이전의 평가인증점수에 따른 미인증으로 상태변화 : 연구문제 2

앞에서는 어린이집의 일반특성에 따라서 평가인증 변경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했는데, 이 경우 2014년 당시 미인증이었던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점수 자체가 없으므로 평가인증점수가 평가인증 변경에 관련이 있는지는 분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2014년에 평가인증 상태라 평가인증점수가 있었던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하여 당시의 어린이집 일반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평가인증점수가 미인증으로 변경되는데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평가인증점수에 따른 평가인증 이탈에 관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변수	인증→미인증(기준: 인증→인증)	
	OR	SE
상수	601.12	2750.26
정원총족률	0.97***	0.01
설립주체 유형(기준: 가정)		
국공립	0.99	0.68
민간	0.90	0.27
기타(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협동, 직장)	1.00	0.38
정원	0.99	0.00
유아도 보육(기준: 영아만 보육)	0.79	0.30
위탁운영(기준: 직영)	0.50	0.58
취약보육실시(기준: 미실시)	0.92	0.26
운영기간	0.95	0.02
농어촌(기준: 중소도시)	0.71	0.21
평가인증점수(2014년 6월)		
총점	1.06	0.11
보육환경	0.99	0.04
보육과정	1.01	0.04
상호작용과 교수법	0.99	0.04
건강과 영양	0.93*	0.03
안전	0.98	0.04
N	855	
Wald χ^2 (df)	42.82 (16)***	
Pseudo R ²	.07	
Log pseudolikelihood	-251.08	

* $p < .05$, *** $p < .001$.

<표 3>을 보면, 2014년 시점에서의 건강과 영양 영역 평가인증점수가 1점 높아질수록 2017년 미인증으로 변경될 오즈비(odds ratio)가 7%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OR=0.93, $p<.05$). 하지만 그 외의 평가인증점수 총점, 보육환경,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안전 영역에서의 획득 점수별로는 미인증으로의 변경에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표 2에서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원충족률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OR=.97, $p<.001$).

4.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 연구문제 3

그렇다면 2014년 6월에는 미인증 상태였지만 2017년 5월까지 신규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가 재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와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연구문제 3) 최소자승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4>(총점, 보육환경, 보육과정), <표 5>(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와 같다.

<표 4>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총점, 보육환경, 보육과정)에 관한 최소자승회귀분석 결과

변수	총점		보육환경		보육과정	
	<i>b</i>	<i>SE</i>	<i>b</i>	<i>SE</i>	<i>b</i>	<i>SE</i>
상수	95.72***	0.67	96.80***	0.62	98.72***	0.70
정원충족률	0.01	0.01	0.01	0.01	-0.01	0.01
설립주체 유형(기준: 가정)						
국공립	0.24	0.47	-0.28	0.34	-0.01	0.55
민간	-0.24	0.24	-0.49	0.26	0.03	0.33
기타	0.34	0.28	-0.54	0.29	0.33	0.39
정원	-0.01***	0.00	0.00	0.00	0.00	0.00
유아도 보육(기준: 영아만 보육)	0.64*	0.28	1.41***	0.30	0.41	0.32
위탁운영(기준: 직영)	1.25**	0.38	0.99***	0.26	1.11**	0.38
취약보육실시(기준: 미실시)	-0.11	0.21	-0.50*	0.22	-0.10	0.26
운영기간	0.00	0.02	0.01	0.02	0.00	0.02
농어촌(기준: 중소도시)	-0.10	0.20	-0.08	0.19	0.26	0.25
미인증→인증	-0.24	0.30	-0.32	0.29	-0.82*	0.40
<i>N</i>	859		859		859	
<i>F</i> (<i>df</i>)	3.83 (11)***		10.42 (11)***		2.31 (11)**	
<i>R</i> ²	.06		.10		.02	

* $p < .05$, ** $p < .01$, *** $p < .001$.

이번 분석에서는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가 2014년 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대상(인증→인증과 미인증→인증) 어린이집의 2017년 6월 시점 평가인증점수를 사용했다. 평가인증점수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최소자승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의 정규분포 가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로버스트(robust) 표준오차 추정을 하였다. 3차지표로 평가인증을 받은 34개소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의 평가인증점수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표 4>와 <표 5>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표 4>의 총점에 관한 분석결과부터 살펴보겠다. 2014년 미인증에서 2017년 인증으로 변경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 총점은 2014년부터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비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 정원, 보육하는 영유아 구성, 위탁운영, 취약보육은 총점에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정원이 1명 늘어날수록 총점은 0.01점씩 낮아졌다($b=-0.01, p<.001$). 유아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총점은 영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총점에 비해 0.64점 높았다($b=0.64, p<.05$). 위탁운영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직영인 어린이집에 비해 총점이 1.25점 높았다($b=1.25, p<.01$).

<표 4>의 보육환경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겠다.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점수는 재인증 어린이집에 비해 차이가 없었다. 통제변수 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구성, 위탁운영, 취약보육 실시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었다. 유아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환경 점수가 1.41점 높았다($b=1.41, p<.001$). 위탁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은 직영을 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환경 점수가 0.99점 높았다($b=0.99, p<.001$).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취약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환경 점수가 0.50점 낮았다($b=-0.50, p<.05$).

<표 4>의 보육과정에 관한 분석결과도 살펴보겠다.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점수는 재인증 어린이집에 비해 0.82점 낮았다($b=-0.82, p<.05$). 통제변수 중에서는 위탁운영만 보육과정 점수에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은 직영을 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과정 점수가 1.11점 높았다($b=1.11, p<.01$).

이어서 <표 5>에서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다.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모두 신규인증 어린이집과 재인증 어린이집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통제변수는 이런 영역별 점수에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어린이집의 정원이 1명 늘어날수록 상호작용과 교수법, 안전 점수가 각각 0.01점($b=-0.01, p<.001$), 0.03점씩($b=-0.03, p<.001$) 낮아졌다. 유아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상호작용과 교수법 점수가 0.70점 낮았다($b=-0.70, p<.05$). 위탁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은 직영을 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상호작용과 교수법 점수가 1.17점 높았다($b=1.17, p<.05$). 정원충족률이 1% 높아질수록 건강과 영양, 안전 점수가 각각 0.02점($b=0.02, p<.05$), 0.03점($b=0.03, p<.05$) 높아졌다. 기타(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협동,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건강과 영양 점수가 0.93점 높았다($b=0.93, p<.05$).

〈표 5〉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에 관한 최소자승회귀분석 결과

변수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i>b</i>	<i>SE</i>	<i>b</i>	<i>SE</i>	<i>b</i>	<i>SE</i>
상수	97.24	0.73	93.34***	0.98	94.44***	1.15
정원충족률	0.00	0.01	0.02*	0.01	0.03*	0.01
설립주체 유형(기준: 가정)						
국공립	0.23	0.49	0.98	0.68	1.04	0.77
민간	0.13	0.28	-0.04	0.37	-0.09	0.40
기타	0.42	0.34	0.93*	0.42	0.14	0.54
정원	-0.01***	0.00	-0.01	0.00	-0.03***	0.01
유아도 보육(기준: 영아만 보육)	-0.70*	0.35	0.63	0.45	-0.14	0.48
위탁운영(기준: 직영)	1.17*	0.46	0.74	0.70	0.65	0.84
취약보육실시(기준: 미실시)	0.07	0.25	0.02	0.31	-0.71	0.38
운영기간	-0.03	0.02	0.03	0.03	-0.02	0.03
농어촌(기준: 중소도시)	0.03	0.26	0.15	0.31	-0.61	0.37
미인증→인증	-0.08	0.33	-0.07	0.48	0.28	0.48
<i>N</i>	859		859		859	
<i>F</i> (<i>df</i>)	6.82 (11)***		1.96 (11)*		11.51 (11)***	
<i>R</i> ²	.08		.03		.15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이번 연구는 2014년 5월 이전부터 2017년 5월 말까지 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 어린이집 1,056개소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평가인증 상태변화가 어린이집의 일반특성 및 평가인증점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봤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세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평가인증 상태변화에 관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연구문제1), 2014년 평가인증 점수에 따른 평가인증에서의 이탈에 관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연구문제2),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2017년 평가인증점수에 관한 최소자승회귀분석(연구문제3)을 각각 실

시켰다.

연구문제별 주요 분석 결과를 논의하겠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풀기 위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지난 3년 사이에 평가인증에서 이탈하거나, 신규인증을 받았거나, 미인증을 고수하는 어린이집은 공통적으로 3년 전의 정원충족률이 낮았다. 그중에서도 미인증을 고수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 수준이 특히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차명숙(2015)의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정원충족률과 달리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과 평가인증 상태가 변화된 어린이집 간에 설립주체 유형, 정원, 보육하는 영유아 구성, 위탁운영, 도시규모의 일반특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신규인증 어린이집에서는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적고, 운영기간이 짧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는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설치된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평가인증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종합하면,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을 제외하면 나머지 일반특성과는 무관하게 운영기간이 길어지면서 재인증까지 받는데, 일반특성 만으로는 구체적인 이유는 파악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정원충족률이 낮았던 어린이집에서 주로 평가인증 상태가 변화된 것이다.

첫 번째 분석을 통해 정원충족률이 낮았던 어린이집이 주로 평가인증에서 이탈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일반특성 만으로는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두 번째 분석에서는 평가인증점수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평가인증의 어느 영역이 이탈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원충족률을 제외하면 여러 평가영역 중에서 낮은 수준의 건강과 영양만이 평가인증을 이탈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그 외에 총점, 보육환경,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안전 수준은 평가인증에서의 이탈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두 번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원충족률과 더불어 낮은 수준의 건강과 영양 서비스 질이 평가인증에서 이탈하는데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11월 이후 3차 평가인증이 시행되고 미인증 어린이집을 불인증, 미신청, 변동(취소, 종료 등)으로 구분한 정보가 공개되면,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정교한 후속연구가 이어져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신규인증 어린이집이 획득한 평가인증점수는 재인증 어린이집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기 위하여 최소자승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새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점수가 약 1점 낮지만 총점, 보육환경,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영역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

다. 평가인증점수보다는 오히려 정원충족률, 설립주체 유형, 정원, 보육하는 영유아 구성, 위탁운영, 취약보육의 일반특성에 따라서 평가인증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어린이집의 정원이 늘어날수록 상호작용과 교수법, 안전 수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위탁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은 총점, 보육환경,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의 여러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협동, 직장이 속한 기타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건강과 영양의 질이 우수했다. 보육하는 영유아 구성과 평가인증점수의 관련성은 영역별로 복잡했다. 유아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총점과 보육환경 수준이 높았으나, 상호작용과 교수법 수준은 낮았다. 이번 연구에서의 결과와 달리 서문희·양미선·이정원 외(2013)의 연구에서는 신규인증 어린이집과 재인증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두 연구에서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서문희·양미선·이정원 외(2013)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 일반특성을 통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재인증 어린이집과 신규인증 어린이집 간의 평가인증점수 격차는 평가인증을 받은 횟수보다는 어린이집의 일반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분석결과와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겠다.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평가지표와 어린이집이 획득한 평가인증점수(총점과 영역별 점수)의 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건강과 영양 영역의 점수가 평가인증에서 이탈하는데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 외의 총점, 보육환경,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안전 점수는 평가인증에서의 이탈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또한 보육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의 평가인증점수가 재인증 어린이집과 신규인증 어린이집 간에 차이가 없었고, <표 1>의 기술통계에서 평가인증 총점과 모든 영역별 평균점수가 90점대 초중반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현재의 평가인증점수 변별력이 낮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제3차 평가인증이 등급제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의 평가인증점수 분포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등급별 커트라인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지 정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인증 상태변화나 획득한 평가인증점수의 변화에 따라서 정원충족률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후속연구에서 중단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어린이집 일반특성 중에서도 정원충족률이 세 가지의 평가인증 상태변화에 모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역으로 평가인증 변경과 평가인증점수가 어린이집 이용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주어 정원충족률이 변화되는지를 알아보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평가인증제도 참여와 평가인증결과 정보공개제도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현재의 평가인증점수는 어린이집의 영역별 서비스 질이 변별력 없이 과대추정 되고 있으므로, 제3차 평가인증에서는 등급 분류가 어린이집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도록 평가지표의 타당도를 높여 모든 어린이집이 A등급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둘째, 정원충족률이 낮을수록 미인증으로 이탈하거나 미인증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원충족률이 낮고 미인증을 고수하는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평가인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안내, 교육,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건강과 영양 점수가 낮았던 어린이집이 미인증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고, 기타어린이집에 비해 가정어린이집의 건강과 영양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어린이집을 표적 집단으로 하여 건강과 영양 수준을 높이고 평가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해야 한다. 넷째, 신규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의 보육과정 수준이 재인증 어린이집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신규 신청 시 보육과정 평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이 영역의 서비스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높은 등급을 받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린이집 측에도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등급별 인센티브 차등 제공도 고려해볼 수 있다.

곧 다가올 제3차 평가인증에서는 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관해서도 표준화된 등급으로 평가결과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신청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되어 모든 어린이집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정책변화가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정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많은 정보를 쉽게 전달해줄 수 있도록 이번 연구에서 밝혀낸 신규인증, 이탈, 지속적인 미참여 어린이집을 표적 집단으로 한 홍보, 교육, 사후관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영희·박지현·이은주(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자료활용 및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3), 387-397.
- 김준현(2017).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발전방안 연구: 평정방식과 평정결과 공개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7(4), 53-79.

- 남미경(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발달과 교수 효능감 및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4(3), 68-90.
- 박진아·도남희·조혜주(2015). 지역별·유형별 어린이집 수급 현황 분석 및 전망.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16). 보육통계 2016년 12월 말 기준. 세종: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7). 2017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통합지표). 서울: 한국보육진흥원.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5). 2015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서울: 한국보육진흥원.
- 서문희·김온기·김명순·서영숙·이완정·서소정·나종혜·김은영·이계윤·이원선·송신영(2009). 보육시설 평가 인증 시행의 평가와 추진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신희연·송신영(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효과 분석.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이정원·김온기·원종욱·송신영(2013). 어린이집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제도 중장기 개편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서현(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보육교사 경험의 의미. *한국영유아보육학*, 50, 1-29.
- 양미선·이규림·정지운·김정민(2016).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유재언(2014). 충청북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5), 15-30.
- 유재언(2017). 2015학년도 어린이집 월별 정원충족률 변화 분석을 통한 월별 통계자료 제공 필요성 논의. *디지털융복합연구*, 15(3), 27-37.
- 이미화·서문희·최윤경·엄지원(2012).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발전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이한우·염동문·강봉석(2016). AHP분석을 통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에 대한 중요도 연구: 경남지역 40인 이상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1), 307-325.
- 조해연·유선영·박선혜(2014). 유아교육기관 평가 지표 분석: 한국(유치원평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미국(NAEYC), 호주(ACECQA)의 상호작용 영역 평가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8(6), 139-163.
- 차명숙(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 배경요인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4), 199-213.
- 차영숙·유희정·강민정(2012).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들려주는 평가인증 참여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 *유아교육연구*, 32(6), 83-109.

- 천희영·최혜영(2015). 부산지역 인증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수준 분석. 생애학회지, 5(1), 91-104.
- 최미숙·정영미·이빛나(2013). 법인어린이집 평가인증 재인증에 대한 교직원 인식 차이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75, 117-134.
- 최효미·이정원·김진미(2015).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격차에 따른 지역 유형화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탁옥경·배지희(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한 원장과 교사의 인식. 유아교육 연구, 27(4), 327-353.
- 하영례(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준비과정의 어려움에 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2(4), 25-47.
- 한겨레 2016. 10. 5. 아동학대 어린이집 평균 90점 이상...‘एं터리’평가인증.
- 한국보육진흥원(2017). 어린이집 평가인증-평가인증 제도운영. <https://www.kcpi.or.kr/>

·논문접수 8월 9일 / 수정본 접수 8월 28일 / 게재 승인 9월 19일

·교신저자: 유재언, 아이오와주립대 인간발달가족학과 박사, 이메일 jjagjjag@naver.com

Abstract

Service Quality of Child Care Centers and Changes in Participation in Accreditation Policy

Jaeon Yoo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haracteristics and service quality of child care centers, and changes in participation in accreditation policy over last three years. Based on the data from 1,056 child care centers in Chungbuk province in 2014 and 2017, multinomial and binary logistic, and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he child care centers with lower levels of enrollment rates were less likely to continue to participate in accreditation policy. In addition, lower level of the health and nutrition quality of child care centers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n the likelihood of discontinue participation in the accreditation policy. Moreover, the care process quality of child care centers that recently participated in this accreditation policy was lower than those of child care centers that have consistently participated in the policy. However, other service qualities in 2017, such as environment, interaction and teaching, and safety did not vary from changes in participation in the policy. These results hav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accreditation policy to provide objective information and service quality of child care centers.

Key words: Accreditation Policy, child care policy, child care center, administrative big data